

정원에서 도시로 간 나무: 16-19세기 파리 가로수를 통해 본 자연의 도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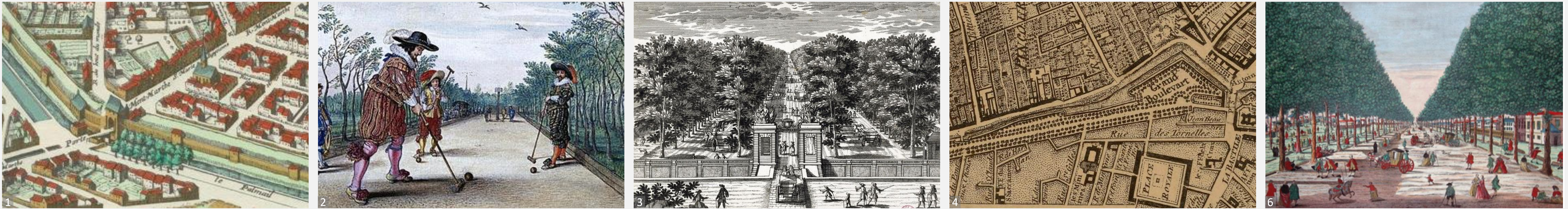
From Garden to City: The Urbanization of Nature Through Parisian Street Trees, 16th-19th Century

*박소영,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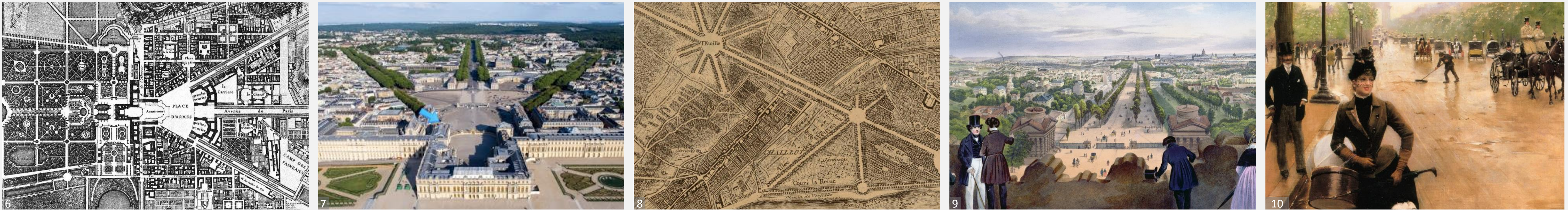
가로수는 가로등, 전봇대, 도로와 함께 도시에 보편적으로 하는 자연이다. 현대 도시에서 가로수의 존재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400여 년 전 파리에서 나무의 존재는 낯선 것이었다. 숲이나 정원에 속하던 존재인 나무가 가장 인공적인 환경인 도시에 자리하게 된 것은 도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나무가 도시 환경 속에서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이 되어가는 양상을 규명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파리에서 나무가 통합된 대로(불바드, boulevard) 체계가 성립하고 전세계 도시에 강력한 가로수 모델을 제공했다는 데 주목하고, 파리에서 정원의 나무가 공공의 도시 인프라로서 가로수(街路樹)로 거듭나는 양상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인간-자연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정원을 넘어: 도시 가장자리의 알레

역사학자 마르셀 포에테에 따르면 16세기, 17세기 파리 성벽 안에는 개인 소유의 정원이 번영했다.“부자에게 파리는 지상 낙원,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그는 전원을 찾는다.”(Poète, 1913: 17) 17세기까지 나무그늘 아래의 산책은 파리에서 자신의 정원을 가진 엘리트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접어들어 도시가 점점 과밀해지고 개발되면서 도시 내부의 정원은 점차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도시의 개발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16세기 말 17세기의 절대군주들은 도시 성벽 바깥에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정원과 별개로 여가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탄생시킨다. 센 강변은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았으나 프랑스의 왕비와 양녀는 센 강을 마주보고 자신의 정원과 연속적인 알레를 만들었다(쿠르, cours). 앙리 4세는 도시 성벽 바깥쪽의 일부 구간들에 크리켓의 효시가 되는 게임 팸멜을 위한 경기장을 조성했다(팸멜, paille-maille). 루이 14세는 도시의 옛 성벽을 허문 터를 산책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불바드, boulevard). 도시 번두리에 국지적으로 조성된 사레들과 달리 태양왕의 산책로는 도시를 크게 순환하는 체계로 기획되었으며 루이 16세 때 완성된다.

16, 17세기에 조성된 쿠르, 팸멜, 불바드는 모두 나무가 심어진 산책로였다. 세 유형의 공간은 모두 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길의 형식을 가졌는데, 이는 본래 정원 산책로의 형식인 알레(allée)를 정원 바깥의 도시로 가져온 것이었다. 이전까지 나무가 질서정연하게 심어진 길에서 산책하는 경험은 정원을 가진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엘리트들이 전통적으로 정원에서 녹음과 신성한 공기를 누리며 산책하는 공간은 알레였다. 절대왕정 초기 도시의 알레가 생겨나면서 나무는 정원의 담장이나 교외 도로가 아닌 도시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부르주아 계급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도시의 알레는 엘리트의 전유물을 넘어 보다 많은 도시민의 경험 속에도 뿌리내린다. 도시의 알레는 인기를 끌며 새로운 도시적 경험을 낳았고, 이 경험 속에서 나무와 나무가 심어진 길은 비로소 도시적 특성을 띄기 시작했다.



3. 외부 세계를 향해: 태양왕의 아비뉴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태양왕의 고전적 아비뉴는 도시의 알레와 다르게 공간의 경계를 뚫고 외부로 발산한다. 훗날 상젤리제로 거듭나는 퐁르리 아비뉴는 퐁르리 정원의 중심 축을 따라 확장되었으며, 베르사유의 세 갈래 길 역시 베르사유 궁전의 축을 중심으로 방사한다. 조경가 르 노트르는 퐁르리 아비뉴 확장과 베르사유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고전적인 정원을 조직하는 형식 원리를 정원에 출입하는 진입로, 즉 아비뉴에 적용한다. 아비뉴란 본래 교외적 특성이 강했으나 절대군주의 아비뉴는 상징적 축을 재현하는 알레를 대규모로 확대·확장한 것이었다. 베르사유와 퐁르리 아비뉴는 기념비적 건축과 정원의 축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가로수길이 된다. 태양왕의 아비뉴는 명백히 개인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했으나 동시에 정원에 원형을 둔 가로수길의 형식을 도시계획에 통합한 사례이기도 했다. 태양왕과 르 노트르의 아비뉴의 방사선 모양으로 뻗는 형식은 도시의 가로수길의 모태가 된다.

18세기와 19세기, 파리는 혁명과 절대왕정의 몰락과 인구 과밀과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태양왕의 아비뉴는 도시 공원으로 성격이 변화한다. 교외 개발과 함께 계속 연장되는 퐁르리 아비뉴는 상젤리제라는 이름을 얻었고 주변에 다양한 상업 오락시설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 거듭난다. 근대 도시에서 파리의 기존 아비뉴에서 권력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퇴색했고 당대의 도시가 요구하는 연결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에서 도시로 확장하며 기념비로 수렴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가로수길 형식은 강력한 권력만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나폴레옹 3세와 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오스만 시장은 파리 개조 사업을 통해 도시를 관통하는 방사형 도로 체계를 건설하는데, 이때 채택한 형식이 17세기 베르사유와 퐁르리의 아비뉴였다. 개조된 근대 파리를 대표하는 거리에서 나무는 교통과 권력의 상징에 동원되는 녹색 틀로 뿌리내린다.



4. 도시의 기반으로: 가로 체계 속 가로수

인구가 폭발하는 파리의 도심은 비좁고 위생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1832년과 1849년 파리에서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깨끗한 공기와 물에 대한 공공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나무의 건강 상의 효용은 17세기부터 주창되어 왔으나 근대 도시가 당면한 환경 및 공중보건 문제는 나무를 도시의 필수품으로 요구했다. 나무 식재를 비롯한 도시 조건의 개선은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제국, 프랑스의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다. 오스만 시장의 전임자 랑비토(Rambuteau)의 구호는 ‘물, 공기, 그늘’로서 그는 도로에 나무 식재를 장려했고 오스만 시장은 나폴레옹 3세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나무를 도시를 가로지르는 방사형 도로에 심는다. 파리 개조 사업을 통해 가로수길은 산책로를 넘어 공공 도로의 일반적 형식이 되었다. 공공 도로에는 나무와 연관된 공기의 순환 뿐 아니라 폐기물과 깨끗한 담수의 순환, 차량 중심의 물자와 자본의 순환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통합되었다. 나무는 가스등, 아스팔트 도로, 보도, 상하수도, 담수관 등 인공 시설과 새로운 도시적 운명을 함께하게 되었다.

나무는 정원의 작은 산책로인 알레에서 정원 바깥의 알레로서 16세기 말, 17세기 초 쿠르, 팸멜, 불바드로 이식되었다. 또 정원의 형식을 압도적인 규모로 확대한 아비뉴에도 심어져 녹색 전망을 생산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는 근대 파리의 공공 도로를 따라 도시 전역에 뿌리내리게 된다. 이때 도시를 관통하는 대로는 17세기 루이 14세의 성곽 산책로의 이름을 따 불바드로 불리게 된다. 현대 도시의 공공 도로의 기원은 알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근대 가로수길은 빈 땅이나 옛 성벽의 터에 조성된 과거의 산책로와 달리 옛 도시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지은 개발의 결과였다. 나무는 공학적 표준에 따라 도로와 함께 설계되고 식재되며 전문화된 관리 하에 도시에 존재하게 된다.

5. 나가며: 제4의 자연으로서 가로수

샤피로는 나무가 식재된 파리의 산책로의 원형을 정원술에서 찾을 수 있기에 제3의 자연(정원)을 제2의 자연(도시)에 도입한 것으로 해석했다(Shapiro, 2015: 187).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가장 도시적인 자연이면서 자연적인 도시 인프라인 가로수는 제2의 자연도, 제3의 자연에도 속하지 않는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대로 체계와 함께 정원의 고전적, 기하학적 원리는 도시 전역으로 증폭된다. 가로수길이 대규모로 관통하는 축으로 확장되고 나무가 과학적으로 관리되면서 도시의 나무는 숲이나 교외와 같은 자연에 준하는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다. 정원 속 나무의 전원적 특성은 퇴색되고 가로수는 도시의 기하학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가로수는 오히려 생태학자 Ingo Kowarik가 제안한 제4의 자연으로 보아야 맞다. 가로수는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인공과 자연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이다.

reference

1. Beamish, A. (2018). A garden in the street: the introduction of street trees in Boston and New York.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38(1): 38-56.
2. Dorion, N. (2013) Petite histoire des alignements à Paris du XVI^e siècle au XIX^e siècle. *Jardins de France* 626: 7-9.
3. Laurian, L. (2019) Planning for street trees and human-nature relations: lessons from 600 years of street tree planting in Paris. *Journal of Planning History* 18(4): 282-310.
4. Lawrence, H. W. (2008) City trees: A historical geography from the renaissance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y.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5. Poète, Marcel. (1913) La promenade à Paris au XVII^e siècle. Paris: Armand Colin.
6. Shapiro, Gideon Fink. (2015) The promenades of Paris. Aliphand and the urbanization of garden art, 1852-1871.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images

1. Matthäus Merian, "Plan De Mérain", Paris Musées, 1615.
2. Adriaen van de Venne, "Drawing of a game of "pelle-melle" between Frederick V of the Palatinate and Frederick Henry", c. 1620-1626.
3. Pierre-Alexandre Aveline, "Le Cours de la Reine", Muse'e Carnavalet d'Histoire de Paris, 1616.
4. 8. John Rocque, "Plan de Paris", Gallica Digital Library, 1754. figure 4 illustrated Grand Boulevard and figure 8 illustrated Avenue des Champs-Élysées.
5. L.J. Mondhare, "Vue du boulevard prise de la Porte St. Antoin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8th century.
6. Gesamtplan von Delagrè, "Plan de Versailles", Gallica Digital Library, 1746.
7. "Vue aérienne du domaine de Versailles par ToucanWings", Wikimedia Commons, 2013.
9. Félix Benoist, "Avenue des Champs-Élysées vue du haut de l'Arc de Triomphe", Wikimedia Commons, c. 1850.
10. Jean Béraud, "La Modiste Sur Les Champs Élysées", Private collection, Wikimedia Commons, 1880s.
11. Aliphand, "Les Promenades de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667-1673.
12. Unknown author, "Demolition of Butte des Moulins for Avenue de l'Opéra", Brown University Library, 1870.
13. Unknown author, "Avenue de l'Opéra", Wikimedia Commons, 1905.
14. Camille Pissarro, "Boulevard Montmartre, Spring", The Israel Museum, Jerusalem, 1897.
15. Comité Callebotte, "Boulevard Montmartre, Spring", Thyssen-Bornemisza Museum, 1880.